



책 읽는 **곰**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,
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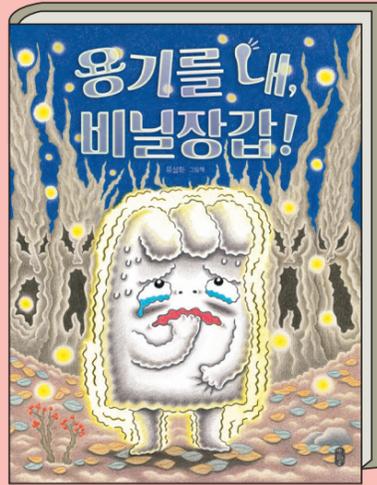


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자길 43
전화 02-332-2672-3 팩스 02-338-2672
홈페이지 www.bearbooks.co.kr
SNS Instagram @bearbooks_publishers



책놀이책





용기를 내, 비닐장갑!

유설화 글·그림 | 책읽는곰 펴냄

비닐장갑은 장갑초등학교에서 제일가는 겁쟁이에요.

오늘은 한 학기에 한 번 장갑산에 올라가

별을 관찰하는 별빛 캠프가 열리는 날이에요.

친구들은 모두 별을 볼 생각에 잔뜩 들떠 있지만,

비닐장갑의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지요.

‘바람에 날려 가면 어찌지? 산에 불이라도 나면...!’

그런데 그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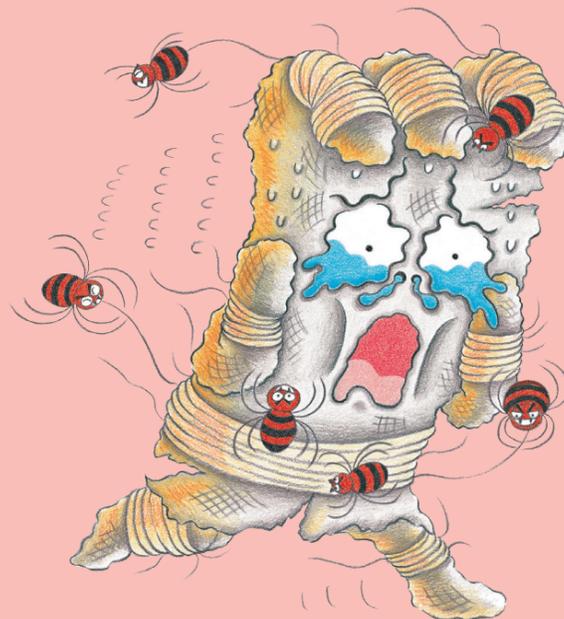
어두운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가다가,

선생님과 친구들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만 거예요.

몸이 가벼운 비닐장갑만 빼고요.

과연 겁쟁이 비닐장갑 혼자 산을 내려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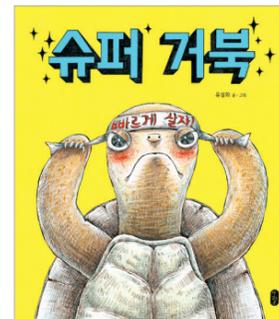
구조대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?



유설화 작가의 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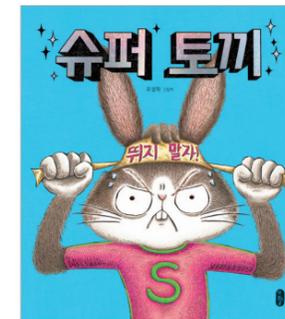
유설화 작가의 말

말썹꾸러기 쌍둥이 장갑 이야기를 담은 《잘했어, 쌍둥이 장갑!》에 이어 겁쟁이 비닐장갑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어요. 비닐장갑은 얇고 투명한 생김새만큼이나 겁도 많고 마음도 여린 친구예요. 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답니다. 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했던 비닐장갑이 이번만큼은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.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. 그럴 때 나를 믿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지요. 비닐장갑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!



슈퍼 거북

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
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
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
교과서 수록 도서



슈퍼 토끼

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
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읽어 주기 좋은 책



우리우리한 개집

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
북스타트 보물상자 선정 도서
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



밴드 브레멘

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



잘했어, 쌍둥이 장갑



그림책을 보기 전에

- 1) 표지 속 비닐장갑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? 비닐장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
- 2) 여러분도 겁나는 것이 있나요?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볼까요?
- 3) 비닐장갑, 고무장갑, 털장갑... 여러분이 아는 장갑 이름을 떠올려 볼까요?
그 장갑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.
각각의 장갑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요?

그림책을 보고 나서

- 1) 여러분이 장갑 초등학교 어린이라면 어떤 장갑일 것 같아요?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.
- 2)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하기도 전에 걱정되는 일이 있었나요?
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?
- 3) 여러분이 비닐장갑의 친구라면 캠프를 앞두고 걱정이 가득한 비닐장갑에게
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요?
- 4)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한 비닐장갑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?
- 5)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정말 무섭고 싫지만, 용기를 내 본 경험이 있나요?
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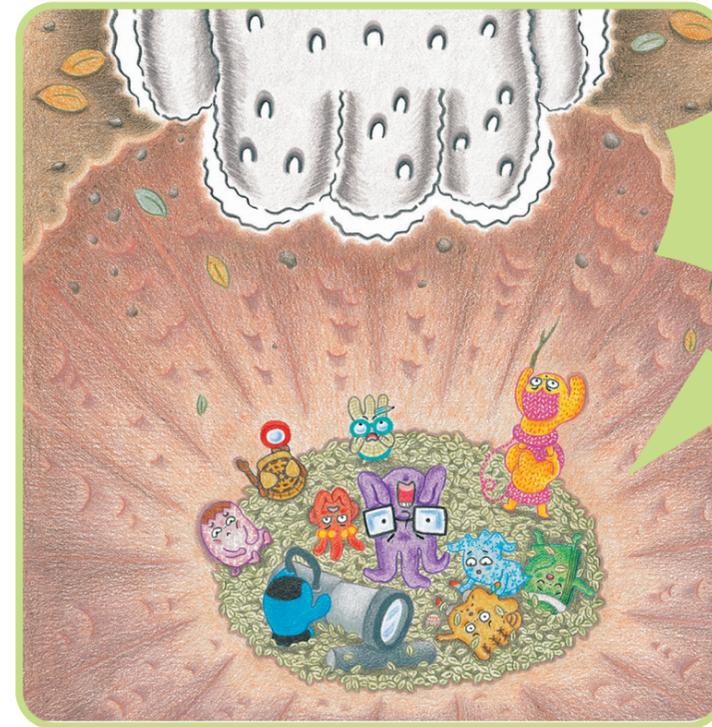
장갑 친구들이 별빛 캠프에 간다고 잔뜩 들떠 있어요. 딱 한 명, 비닐장갑만 빼고요.
장갑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아래 말풍선에 친구들의 속마음을 적어 볼까요?



여러분이 비닐장갑의 친구라면, 캠프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비닐장갑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?



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. 여러분이 비닐장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했을까요?



비닐장갑아,
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
너뿐이야!
용기 내!



비닐장갑아,

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하려면,



비닐장갑이 용기를 내 준 덕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어요.
여러분이 장갑 친구들이라면 비닐장갑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.

비닐장갑아,
그동안 겁쟁이라고
놀려서 미안해.

장갑마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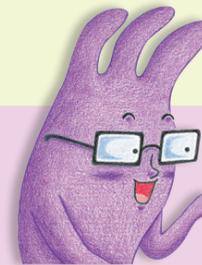


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무섭고 싫은 것이 있나요? 다음 표에 표시해 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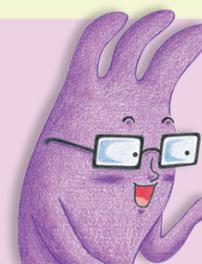
무서운 것	많이 무섭다	조금 무섭다	무섭지 않다
높은 곳			
어두운 곳			
천둥과 번개			
벌레나 뱀			
괴물이나 귀신			
싸움이나 폭력			
물에 빠지는 것			
치과에 가는 것			
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			
낯선 곳에 혼자 있는 것			
친구들에게 놀림 당하는 것			
시험을 망치는 것			
가족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			



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



그 상황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떨까요?



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.
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서로 가장 겁나는 것,
또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?

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용기를 냈던 적이 있나요? 그 일을 떠올려 볼까요?



언제였나요?

.....

어디서였나요?

.....

누구와 함께 있었나요?

.....

무슨 일이 있었나요?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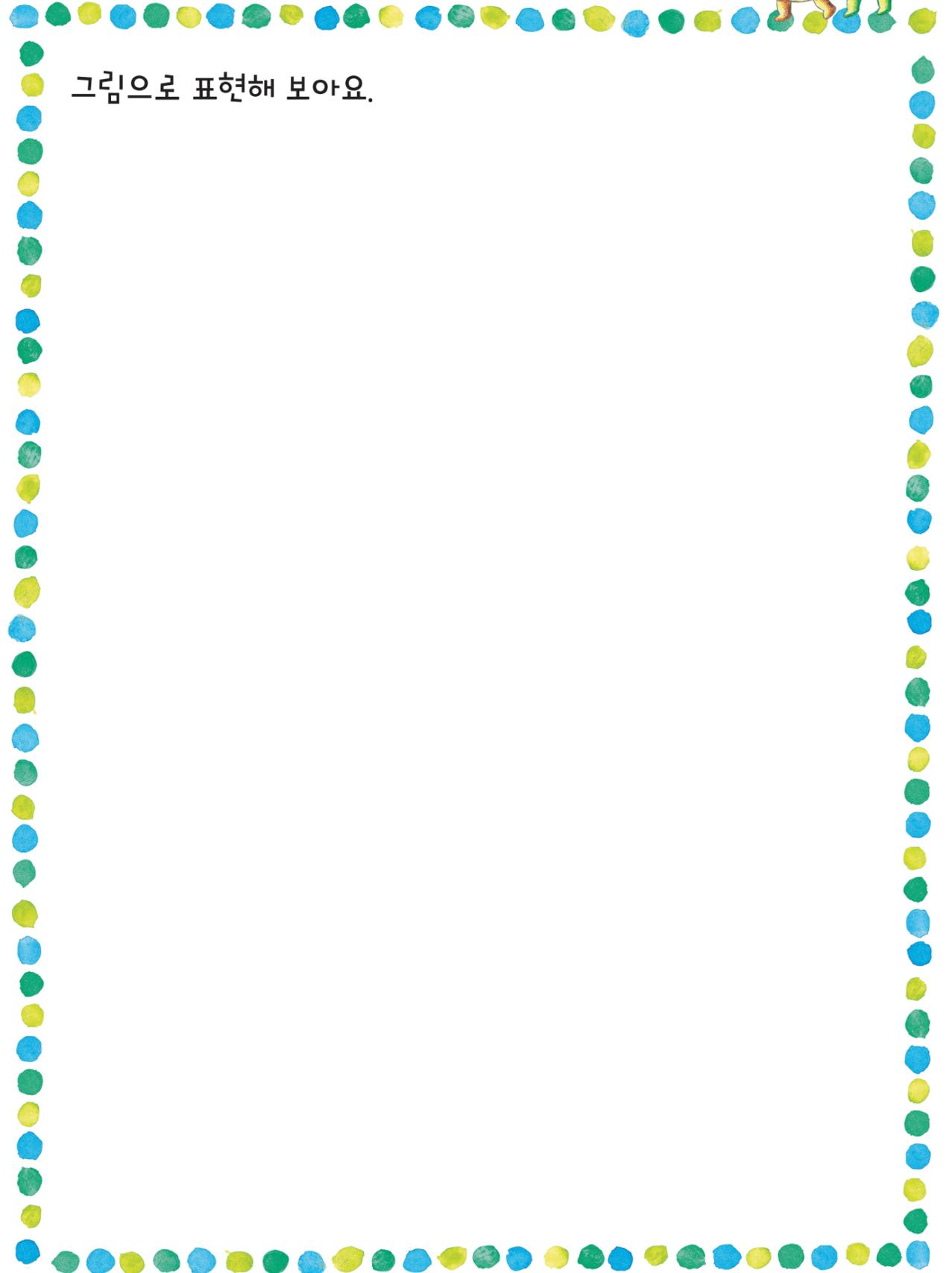
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나요?

.....

왜 용기를 내게 되었나요?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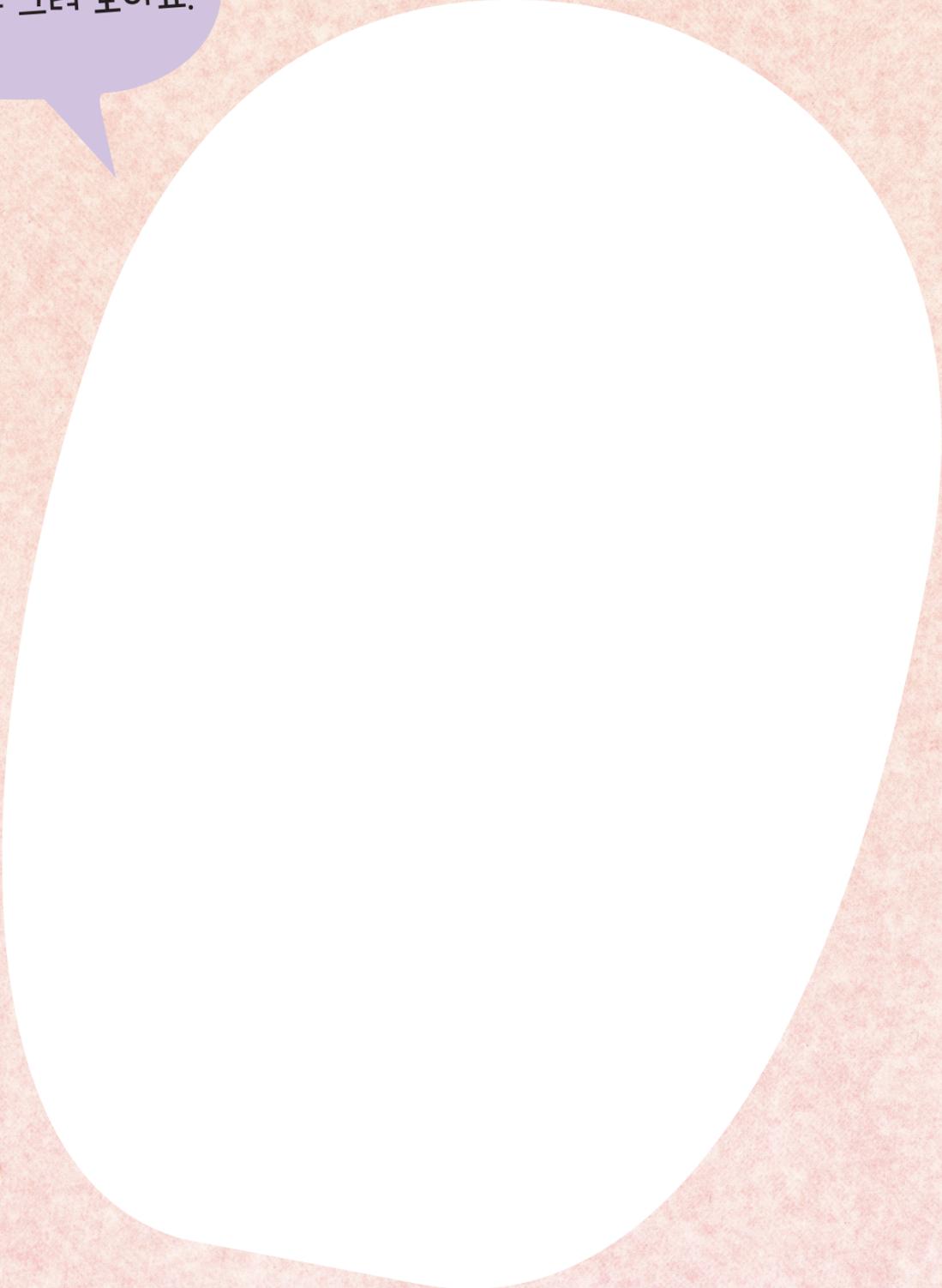
그림으로 표현해 보아요.



여러분이 장갑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어떤 장갑이 되고 싶나요?

나와 닮은 장갑을 그려 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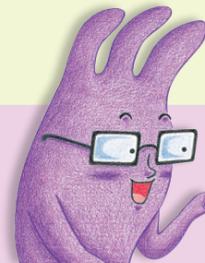
여기에 나만의 장갑
캐릭터를 그려 보아요.



어떤 장갑인지 소개해 주세요.



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

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

장갑 초등학교 친구들이예요.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상상해 볼까요?



별명 : 겁쟁이
 잘하는 일 : 친구들 걱정해 주기
 못하는 일 : 거친 운동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별명 :
 잘하는 일 :
 못하는 일 :



《잘했어, 쌍둥이 장갑!》과 《용기를 내, 비닐장갑》에 이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장갑일까요?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.

글을 써도 좋고,
그림을 그려도
좋아요!

